

나주시-세이브더칠드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유니세프(UNICEF)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 중인 나주시가 국제 구호

아동권리 교육·청소년 지원 등 상호 협력 약속 강인규 시장 "아동친화도시 조성 박차 가할 것"

개발 NGO단체와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나주시는 지난 14일 국내 아동권리 기관인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지부장 유혜영)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은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 실현을 위해 인증,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

개국 국가에서 활동하는 NGO단체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원칙(제9항 아동권리대변인) 실천의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자체와 비정부기관 간 폭넓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인적·물적 지원 및 사례관리 연계 지

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치와 이념, 아동 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 되길 기대한다"며 "긴밀한 상호협력에 기반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말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에 따라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받는 지역사회

회를 뜻한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체결',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가립', '아동실태 조사 용역 및 시민원탁토론회 개최', '아동친화 전담조직 구성', '아동권리대변인(옵무즈퍼슨)위촉',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등을 추진해왔다.
'아이랑 함께 꿈꿔요, 나주랑 함께 키워요' 라는 공식 슬로건 아래 연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대전면 지사협, 행복충전 소비 쿠폰 사업 업무협약

프린스제과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위한 민·관 협약식 개최



담양군 대전면은 지난 14일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정현)와 프린스제과(대표

박현국) 간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체 특화사업인 '행복충전 소비 쿠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제성현 면장과 이정현 협의체위원장, 박현국 프린스제과 대표가 참석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의체에서는 쿠폰을 제작해 지급하고, 프린스제과에서는 빵, 케이크, 빙수 등의 품목을 10% 할인해 판매하게 된다.
제성현 대전면장은 "지역의 이웃을 돕기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프린스제과와 협의체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중영기자

곡성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체조와 함께 건강나이 '업'



곡성군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건강하게 오를 동안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강체조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대부분

은 70세 이상으로 관절과 혈관질환 등 노년질환에 취약하다. 따라서 곡성군은 일자리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기 전에 준비운동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A씨는 "담당자와 반장의 구호에 맞춰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고 하하 호호 웃다

보면 점점 젊어지는 것 같다.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마음은 청춘이다. 지금처럼 건강을 잘 유지해서 노인일자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며 활박웃음을 지었다.
곡성군은 11개 읍면 및 3개 수행기관을 통해 약 1,340명에게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각 읍면 등에서 다양한 일을 하면서 활기찬 노후생활 즐기고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화순군, 밤나무 해충 항공 방제 시행

백아면·사평면 일대 87.7ha 방제...밤 수확량 증대 기대

화순군이 15일 오전 지상방제가 곤란한 지역에 있는 밤나무 재배 농가에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군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밤 수확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산림청에서 헬기 1대를 지원받아 항공방제에 나섰다.
밤나무 해충은 주로 종실에 해를 가하는 복숭아명나방, 밤바구미 등으로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고 품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다.
군은 백아면과 사평면 일대 87.7ha에 골고루 충분한 양이 살포되도록 밤나무로부터 15~20m 상공에서 방제를 진행했다. 주변 친환경 재배지에 영향을 없도록 약제는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제품을 사용했다.
화순=박순철기자

군은 방제 대상 구역에 백색깃발을 걸고 양봉 등 다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험지역 경계 부근에는 적색 깃발을 달게 했다. 이런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산림청의 헬기지원 받을 수 없다.
백아면과 사평면 행정복지센터는 양봉농가에 살포지역 밖으로 벌통을 옮기게 하고 방봉을 금지했다. 살포지역 내 민가에는 장독대·우물 덮기, 방제구역 내 임산금지 등을 마을방송으로 미리 알렸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항공방제가 밤나무 해충 구제 효과를 높이고 소득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구례군, 정부 혜택 한눈에 '보조금 24' 서비스 제공

구례군은 정부24 로그인만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24는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보조금24 메뉴에서 수혜서비스 확인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자녀예방접종서비스, 가정양육수당 등 305가지 중앙부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자체별 서비스가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보조금과 서비스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행정기관 각 부서를 개별방문해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나 보조금 24 도입으로 민원인의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보조금24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 종합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보조금24 서비스 담당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지 않은 군민들이 오프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24를 반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 24를 통해 많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방콕탈출 #힐링타임
#안전한영화관람

함평 자동차극장

- GRAND OPEN -

1관 19:20~ 21:45~
2관 19:00~ 21:30~

**코로나19 걱정없이
매일저녁2회상영**

※ 매주 월요일 휴관

함평엑스포공원 황소주차장 내

함평군
HAMGYEONG COUNTY

예매 www.hpcc.co.kr

문의 061)320-2225